

에이즈 예방의 첩경, 여성용 콘돔 페미돔 (Femidom)

신순철/대한가족계획협회 홍보출판과

이 간의 자연스런 성관계에 적신호가 등장했다는니, 사랑을 나눌 때도, 순간의 쾌락과 희열을 추구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조금은 사려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대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임신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염두해 두지 않는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없는 요즈음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그래서 피임 뿐만 아니라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남성용 콘돔이 널리 사용돼 왔고, 급기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신상품 페미돔(Femidom)까지 새롭게 개발되어, 지난 6월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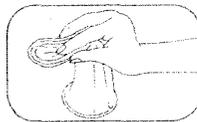
다국적 연구팀에 의해 87년 고안된

페미돔은, 92년 영국 Chartex사가 개발에 성공해 93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피임과 성병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을 공인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피임과 성병예방 효능에 관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페미돔의 길이는 17cm로 콘돔과 같으나 콘돔에 비해 폭이 넓다. 여성의 질 속에 삽입되는 부위는 딱딱하고, 바깥쪽은 남성의 성기가 삽입될 수 있

사용방법은?

페미돔은 성교 전 여성이 미리 삽입할 수 있어 편리하며,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페미돔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림과 같이 내관을 약간의 움직임, 특히 의의 움직임을 통하여 삽입되어야 합니다.



삽입한 후에는 외전 후 부위 장난의 내부를 잠금 버튼 형태로 삽입합니다.



콘돔인 것과 같고 질과 내부를 잠금 버튼 형태로 삽입하여 삽입합니다.



삽입 후 페미돔의 외관을 보거나 만져서 질 내부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미돔에는 질벽을 자극하지 않도록 구멍이 있어 삽입된 후 딱딱한 느낌이 없습니다.

도록 열려 있으며, 양쪽 끝에는 여성의 질내에 삽입하기 쉽고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연한 고리가 달려 있다.

사용할 때는 엄지와 중지로 안쪽의 고리를 오므린 후 검지를 엄지와 중지 사이에 넣는 모양으로 질내에 삽입한다. 페미돔 안으로 검지를 넣어 안쪽 링을 치골까지 지나게 삽입한다. 삽입 후에도 페미돔의 바깥링과 몸체의 일부가 질 외부에 남아 성교 시 여성의 음순과 남성기의 아래부분이 물리적으로 보호돼 감염예방에 도움이 된다.

페미돔은 콘돔의 재료인 라텍스보다 2배나 질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파손율이 거의 없으며, 열전도율이 높아 체온과의 교감이 쉽게 이루어져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양면에는 인체에 무해한 윤활제인 디메치콘이 발라져 있어 촉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원활한 부부관계를 촉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따라서 여성이 사용하는 콘돔이란 의미의 페미돔은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피임을 주도하며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건강과 원만한 성생활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피임기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선호가 쇄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A)**

